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18호
서기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닥치는 일 무심으로 놓으면 절로 해결



우리가 질서를 지켜나가고 하니까 꼭 그렇게 말씀들을 해야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데 그렇게 우리들 앞에 나타나오시나... 만약에 우주

저 건너 서편에, 서천국이라고 하죠. 그 서천국에서 물 한 방울만 땀겨도 통신이 다 되는 겁니다. 물 한 방울 땀겨서 어떻게 통신이 다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제각기 불성이 있고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공부 한 분은 즉시즉시 받아서 사용하시지만은 공부 안 한 분은 그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내일도 미래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내일도 미래죠. 조금 있다가도 미래구요. 그래서 현실에 어떤 문제가 오는 것마다. 내 앞에 닥치는 것마다 항상 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심으로 놓아라. 놓는다면 바로 공범이 된다. 놓으면은 공용으로써 스스로 해결이 된다. 스스로서 해결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비천상도 그려져 있고, 동자들도 그려져 있고, 보살님들도 그려져 있고 그렇게 그려져 있기는 있지만은 그 그려져 있는, 한가지 말을 한다면 비천상은 비천상뿐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비천상은 불쌍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돼 주는 겁니다. 찰라에 그렇게 하고 잘나에 나오는 거죠.

부처님 꽃송이 든 까닭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남의 얘기만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디 출장을 가든지 집을 떠났는지 하더라도, 길을 오다 가다가도 대책이 서질 않았으면 거기다가 딱 맡기세요. 맡겨야 할 줄 모르는 내가 거기다 맡겨야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데를 그렇게 출타할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그 출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걸 아신다면 거기 맡기고 하면은 그게 다 돌아가는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렵다고 모두 하시지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든 어렵지 않든 언제가 웃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웃고 살 수 있어요. 그건 힘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죠. 힘이 없다면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꽃 한송이를 들으시니깐 가섭존자가 빙긋이 얼굴로 웃었던 말입니다. 얼굴로 꽃을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 되니까 말이 없어도 똥방 말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요.

이게 부처님이 돼서 다시 재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계시면은 이 공부를 할 한 분들은 다시 한번 나와서 겪고 또 진짜 부처가 되지만은 완전히 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되신 분들은 다시 재생 하러 나오시지 않는 거죠. 가시다가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되면은 그냥 한 사람인 줄 알죠. 그래서 견지도고 그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모르죠.

일년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해도 과거입니다. 부처님 오시는 그 날이 어느 날이냐... 항상 여러분의 마음으로써 하시는 일들 그 자체가 바로 오시는 날입니다. 찰나찰나 오시죠. 그런데 찰나찰나 오셔도 자기가 하나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르시죠. 이해가 안 가실 지도 모르니지만, 왜 예전에 이런 거 보셨죠? 텔레비전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날아오듯 날아 와서 그 사람

옛날에 제가 밤중에 걸고 있는데 아니, 산비둘기가 말입니다. 막 때로 몰려서 닥치는 거예요. 닥치면서 짹짹거리고 앞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새벽에 보니까 그 앞이 천야만야한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그걸 비둘기라고 그러겠습니까? 부처님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보살님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산신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어느 것을 못해서 관리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 들어든지 다 할 수는 있으나 그 자기가 맡은 바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천차만별 색색가지로 화하는 데는 어떤 거든지 상황에 따라서, 하다 못해 나무들도 그렇고 뭐든지 화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언제나 앞뒤를 두지 마시고 관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은 일대로 해 가면서 자기가 육신의 모습으로는 현실에서 뛰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어려운 앞에 닥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깐 모두 자기 정신계의 자기 주인공한테 맡기세요. 맡겨 놓으세요.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평등하게 봐 줄 수가 있고, 너만이 나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다고 관하세요. 그리고 자식들도 몸으로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름으로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관해 주세요. 마음이 스스로 들어올 때가 되면 들어오고 하게끔 말입니다. 그걸 말로 다 하려니까, 모습으로 보고 때리고 쥐어박고 육하고 속삭이면 별 소리 다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로다 그냥 분이 나서 육을 하고 그 뒤에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육한 씨가 그냥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에서는 업이라고 하는데 업이나 고통이나 고나 모두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고통 받는 거지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왜 했던 말 다시 하고 했던 말 다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게, 제일 급한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이게 생활이라고 하면은 모두 자식 기르면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회적으로 하는 일들이 모두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장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소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또 하지만은 태어날 때 정자 난자가 있는 데로, 돌만 있어 가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 날 범문

각자 불성·주처 있으니
즉시 맡겨놓아 사용하면
언제나 부처님 오신 날

속으로 들어가는 것 보셨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서서 항상 떨어뜨리지 말고 그릇을 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 말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은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로 하여금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항상 그 날이 그 날이기 때문에 어느 날따로 부처님 오시는 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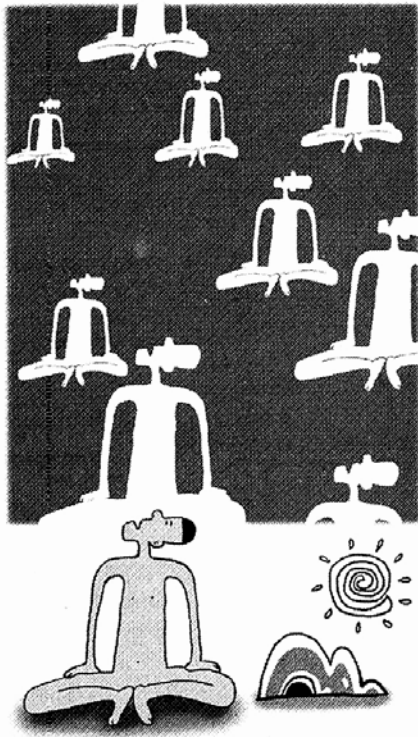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법은 생활속에 있어

지고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태어날 얘기의 생명체가 거기 포함돼야 같이 양태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자체증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벌어져서, 문제가 벌어지게 될 때에 극히 고생을 하면은 조상님을 모셔놓은 탑에 가서 탑문을 열고 아무개를 소리 높여서 부르고 주장자로 세 번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을 자세히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보시면 스스로 아시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말이 없이도 이리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저리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것들요. 천당 지옥이 먼 데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발짝

때 놓으니까 천당이고 한 발짝 때 놓으니까 지옥이더라는 거죠.

그때 어떤 때는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참 시원하고 좋을 때가 있죠.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알아듣고 그대로 해 나가시면서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은 그냥 소리만 들어도 저 분이 또 왔구나 그러고 아주 반갑고 좋죠. 때로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삶을 살면서 고생이 없고, 저 스님은 고생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째 고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고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실 못하셨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배가 고파서 말입니다. 서서 갈 수가 없어서 없으려했습니다. 없으려해서 흘러 내려가는 물을 먹으면서도 행복했다는 얘깁니다. 돈이 많아서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모두 여러분이 편안하시다면 식구가 숟가락을 한꺼번에 넣고 한 그릇에서 먹어도 참 웃음꽃이 피고 그 이튿날은 또 먹을 게 생기는 겁니다.

희한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와서 김치를 하는데 큰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치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런 큰 그릇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 골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더니 아이! 다라가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그냥 세 개를 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더러 그랬죠.

앞뒤를 두지 말고 관하면서 살도록

봄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서 봄 받아

"이렇게 사시는 분이니 이걸 시주하신다면 이 값을 몇 배로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깐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에 부처님 앞에 시주를 한다, 보시를 한다, 또 남 어려운데 보시를 한다. 또 남을 도와준다 이러더라도 그것이 그냥 얹어지는 게 아니고 요만큼도 에누리 없이요. 이 세상에 거저라는 게 요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거저가 요만한 거래도 있는지. 거저를 아신다면 참 마음 편안하고 남한테 쫓기지 않고 잘 못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남들을 속 썩이지 말고 허벅거리지 않게 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야단법석을 하는데 그 청년은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기를 이 없어서 불도 못 쬐고 갈갈한 밥에 문을 열어 놓고 있다가 문을 닫고 자고만 들어도 저 분이 또 왔구나 그러고 아주 반갑고 좋죠. 때로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삶을 살면서 고생이 없고, 저 스님은 고생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째 고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고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실 못하셨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배가 고파서 말입니다. 서서 갈 수가 없어서 없으려했습니다. 없으려해서 흘러 내려가는 물을 먹으면서도 행복했다는 얘깁니다. 돈이 많아서만이 행복한 게

모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울었답니다. 울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장가를 못 들어서 식사도 못 해 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장기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선 장기를 두자고 그랬답니다. 부처님께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장기를 두자고 하니깐 '그래' 하면서 자기가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장기를 놓고도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만약에 지시나 나 장가도 들게 해 주시고 어머니 병도 낫게 하시고 집안을 좀 살게 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지면은 어디서 얻어서라도 음식을 차려 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자기가 대답을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 했는데 정직하게, 아주 자기 꺼나 부처님 꺼나 정직하게 봐서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자기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더러 '꼭 약속한 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선 앉았다가 '내가 영종한 짓을 한 거지. 영종하게 부처님한테 말씀을 한 거지. 부처님이 뭘 알아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살려 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스듬히 나무에 기대서 있는데 그런 큰 그릇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 골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더니 아이! 다라가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그냥 세 개를 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더러 그랬죠.

봐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절에 가다가 그만 발에 돌이 채여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깨보니깐 꿈이더라 말입니다. '아, 이런 꿈이 아니야. 꼭 부처님 오신 날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하고 생각 하고는 그 길로 그 너머 절에 부처님 색시가 탑을 돌더라는 얘기입니다. 탑을 돌면서 어저께 저녁에 밤에 잘 때 꿈에 여기 가면은 신랑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색시가 있다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부부로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맺어 준 모양이라고 하면서 돌이 시집 장가가고, 갔다 오니까 어머니도 병이 씻은 듯이 나오시고 또 이웃에서, 동네는 없지만 아랫동네에서 밥을 몇 개 주면서 마름으로 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마음이 고약하고 나쁘더라고요. 그 나쁜 사람은 부처님한테 와서 또 장기를 두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자기 좋은 대로만 해 가지곤 영종하게 좋은 집으로 알고 가서 색시를 만나서 잠이 들었는데다가 보니까 지붕 위로 모두 사람들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따위 개서 보니까 개천 밑이래요. 개천 밑에 있는 큰 집이 좋아서 거기서 잤는데 아주 벌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얘기이지만 그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안목을 넘겨 고요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에시어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디피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